

경차가 안팔린다고? 확 달라진 모닝 보면 마음 바뀔걸

기아차 부분변경 '모닝 어반' 출시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 등
첨단 보조시스템 동급 첫 탑재
'운전석 통풍 시트' 신규 적용

안전성 높이고 편의성 대폭 강화
복합연비 15.7km/L, 1195만원부터

기아자동차가 신형 경승용차 '모닝 어반'을 출시하고 경차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다.

기아차는 12일 지난 2017년 출시한 3세대 모닝의 부분변경 모델 '모닝 어반'을 출시했다. 기존 모델과 비교해 디자인을 세련되고 개성 있게 교체하고 다양한 안전·편의장치를 적용해 상품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침체된 경차 시장 분위기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경차 시장은 소형 SUV의 등장과 함께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2015년 18만6000여대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이듬해 17만2900여대로 급감했다. 이



기아차 '모닝 어반'

후 매년 시장규모가 줄어들며 2017년 13만8000여대, 2018년 12만5900여대, 2019년 11만3700여대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기아차는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동급 최고 수준으로 적용해 안전성과 도심 주행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모닝 어반은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동급 최초로 적용했다. 또 감지 대상이 보

행자까지 확대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도 함께 적용했다.

첨단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편의 사양도 탑재했다. 기아차는 '운전석 통풍 시트'를 신규 적용하고 넓은 화면으로 시인성을 높인 '4.2인치 칼라 클러스터'와 '8인치 내비게이션'을 적용했다. 문열림·문잠금, 공조 제어 등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UVO 원격제어', 차와 서버를 연결해 자동으로 지도를 업데이트 하는 '내비게이션 자동 무



기아차가 새롭게 출시한 3세대 부분변경 모델 '모닝 어반' 실내.

선 업데이트', 차와 집을 이어주는 '홈 커넥트(카투홈/홈투카)' 등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첨단 기능은 물론 뛰어난 연비도 모닝 어반의 매력이다.

모닝 어반은 개선된 '스마트스트림 G 1.0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76마력(PS), 최대토크 9.7kgf·m의 동력성을 갖췄으며, 복합연비는 최대 15.7km/L(14인치 타이어 기준)로 동급 최고의 연비를 갖췄다. '카파 1.0 에코 프라임' 엔진을 장착했던 기존 모델의 복합연비는

15.4km/L였다.

이 외에 기아차는 크롬 테두리와 '호랑이 코' 모양의 라디에이터 그릴 등 차량 외부 디자인도 개선했다. 또 외장 색상으로 '허니비'를 추가해 젊은 감각을 추구하는 이들의 선택폭을 넓혀줬다. 허니비 색상은 언뜻 보기에 영화 '트랜스포머'의 마스코트 차량 '범블비'를 연상케 한다. 가격은 ▲스탠다드 1195만원 ▲프레스티지 1350만원 ▲시그니처 148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S전선, 美 660억 규모 해저케이블 사업 수주 '시그니처 와인셀러' 도어 방향 내가 정한다

미시간호 노후 해저케이블 교체 미시간주 전력수급 안정화 유도

LS전선이 미국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본격적인 입지 확대에 나섰다.

LS전선은 12일 미국에서 약 660억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교체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미국 중북부 미시간호에 1970년대 설치한 노후 해저 케이블을 내년까지 교체해 미시간주의 전력수급을 안정화 하는 사업이다.

미국은 설치한 지 오래돼 노후된 전력망이 많아, 앞으로도 교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개발도 해저 케이블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은 2050년까지 해상풍력에 의한 발



LS전선이 2017년 미국 첫 해상풍력단지(로드 아일랜드주 앞바다)에 해저 케이블을 포설하고 있다. /LS전선

전량을 연간 86GW 규모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800만 이상의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미국 해저 케

이블 시장은 노후 케이블의 교체와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가 더해져 지속적인 성장에 예상된다"며 "LS전선은 기존 아시아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에 마케팅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S전선은 2006년 미국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2017년 미국 첫 해상풍력단지 연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시장에서 신뢰를 꾸준히 쌓아왔다.

LS전선은 지난해 대만에서 총 5000억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수 천억원대 사업을 수주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LG전자 편의성 높은 신제품 출시

LG전자 와인셀러가 왼쪽으로 열리는 도어도 지원한다. 와인셀러 2개를 같이 쓰거나, 와인셀러와 냉장고를 함께 쓰기 편리해졌다.

LG전자는 12일 왼쪽 방향으로 도어를 열 수 있는 시그니처 와인셀러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와인셀러 도어 방향을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된 것. 와인셀러와 냉장고를 붙여 사용하거나, 와인셀러 2대를 나란히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신제품은 도어 원도를 2번 노크해서 와인셀러 내부 조명을 켜는 노크온 기능도 탑재했다. 보관중인 와인 종류와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어 여닫는 힘수도 줄여준다.



시그니처 와인셀러 신제품. /LG전자

음성만으로도 도어를 여는 오토 스마트 도어도 있다. 와이파이로 LG 씬큐 앱과 연동한 경우, '하이 옐트, 냉장고 문 열여줘'라고 말하거나 제품 하단 센서에 발을 대면 손을 대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다. 가격은 기존 제품과 같은 출하가 기준 740만원이다. LG베스트샵 강남 본점과 대치본점 등에서 체험해볼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건설기계, KT와 스마트 물류 솔루션 고도화

국내 최초로 무인지게차를 출시한 현대건설기계가 KT의 5G 통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솔루션 고도화에 나선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가 12일 공기영 현대건설기계 사장과 전흥범 KT 부사장(AI/DX 융합사업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G 기반 스마트 건설기계·산업차량 솔루션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현대건설기계의 무인지게차 기술과 KT가 보유한 5G 통신,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을 결합해 시장에 한층 진보된 스마트 물류솔루션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기계가 지난해 4월 국내 최초로 출시한 무인지게차 모습. /양성운 기자

특히 이번 기술협력으로 무인지게차의 원격 관제 및 제어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AI 음성제어 솔루션과 영상 및 증강 현실(AR)을 통한 원격 AS 지원 등이 가

능해질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공기영 현대건설기계 사장은 "최근 충북 음성 물류센터에서 열린 무인지게차 실증 시연회에 자동차, 전자 등 대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제품 도입을 위한 수주상담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인지게차뿐 아니라 관제시스템, 충전설비, 창고관리시스템(WMS), 생산관리시스템(MES)에 이르기까지 물류 솔루션 전반을 일괄 공급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과 KT는 자사의 로봇 개발 기술과 선박 건조 기술을 5G, 빅데이터, AI 기술과 결합해 스마트팩토리 및 스마트조선소 사업을 고도화하는 등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쌍용차 노조 "경영정상화 위해 상생 협력"

대리점 협의회 임원진 만나 논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대리점 협의회·노·사·민·정·협의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상생 협력 강화에 나섰다. 12일 밝혔다.

쌍용차 정일권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평택공장에서 대리점 대표들로 구성된 대리점 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위기의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와 사업의 영속적 운영, 고용안정화를 위해 대주주와 정부 등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원확보에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쌍용차 노조 임원진은 이번 대리점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6일 중부지역영업본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광고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5월 한 달간 전국 9개 영업지역본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아울러 영업 일선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생산 현장에 반영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힘을 계속한다.

/양성운 기자